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5.9.24.(수) 석간	배포	2025.9.23.(화)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	책임자	팀 장	설재훈	(02-3145-7600)
		담당자	조사역	박기택	(02-3145-7604)

'25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 운용 현황

- ◆ '25년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4.0조원, 상환액은 2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증가하고 상환액은 감소
- '25년 들어 ELS 시장에 국내외 증시 상승 및 금리 인하 등의 우호적인 발행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25년 상반기 잔액은 87.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

I. 파생결합증권 발행 · 상환 · 잔액 현황

* 추가연계(ELS, ELB) 및 기타연계(DLS, DLB)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이하 동일)

1 개 황

- '25년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4.0조원으로 전년 동기(27.5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하였으며, 상환액은 26.1조원으로 전년 동기(39.4조원) 대비 13.3조원 감소
- '25년 상반기 중 발행액이 상환액을 상회함에 따라, '25년 상반기 말 잔액은 87.2조원으로 전년말(81.6조원) 대비 5.7조원 증가

파생결합증권 발행 · 상환 · 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ELS	18.3	32.9	50.7	36.9	34.6	51.7	21.7	18.0	53.6
DLS	9.3	6.6	29.8	9.1	8.7	29.9	12.3	8.1	33.6
전체	27.5	39.4	80.5	46.0	43.3	81.6	34.0	26.1	87.2

* ELS는 ELS·ELB를 통칭, DLS는 DLS·DLB를 통칭(이하 동일)

2 ELS 발행 · 상환 · 잔액 현황

가 ELS 발행

- **(발행액)** '25년 상반기 중 ELS 발행액은 21.7조원으로 전년 동기(18.3조원) 대비 3.5조원 증가(16.0%)하였으며, 이는 '25년 들어 국내외 증시 상승 및 금리 인하에 따라 ELS 투자수요가 일부 회복한 영향
 - 원금비보장형 비중(46.5%)은 전년 동기(43.3%) 대비 증가하였으며 공모발행 비중(84.0%)은 전년 동기(86.5%) 대비 감소
 - '25년 상반기 원금지급형 발행액(11.6조원)이 직전 반기(28.8조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24년 하반기에 연말 퇴직연금 편입 차환수요가 집중됐던 기저효과에 기인

* '23.下 26.2조원 → '24.上 10.4조원 → '24.下 28.8조원 → '25.上 11.6조원

ELS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합계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발 행 액	18.3 (100.0)	15.8 (86.5)	2.5 (13.5)	36.9 (100.0)	34.8 (94.1)	2.2 (5.9)	21.7 (100.0)	18.3 (84.0)	3.5 (16.0)
원금지급형	10.4 (56.7)	9.3 (50.9)	1.1 (5.8)	28.8 (77.9)	28.0 (75.7)	0.8 (2.2)	11.6 (53.5)	10.1 (46.3)	1.6 (7.2)
원금비보장형	7.9 (43.3)	6.5 (35.6)	1.4 (7.7)	8.2 (22.1)	6.8 (18.4)	1.4 (3.7)	10.1 (46.5)	8.2 (37.7)	1.9 (8.8)

- **(기초자산 유형별)** 지수형 ELS 발행액은 11.3조원으로 전년 동기(9.2조원) 대비 2.1조원 증가하였고, 비중도 52.2%로 증가(+1.7%p)
 - 종목형 ELS 발행액은 9.2조원으로 전년 동기(8.0조원) 대비 1.2조원 증가, 비중은 42.6%로 감소(△1.4%p)

ELS 기초자산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발행액		ELS 유형					
			지수형		종목형		혼합형	
'24.상반기	18.3	(100.0)	9.2	(50.5)	8.0	(43.9)	1.0	(5.5)
'24.하반기	36.9	(100.0)	10.4	(28.1)	23.6	(63.9)	3.0	(8.0)
'25.상반기	21.7	(100.0)	11.3	(52.2)	9.2	(42.6)	1.1	(5.2)

- **(기초자산 개수별)** 기초자산 1개인 ELS 발행금액이 11.0조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비중(50.5%)은 전년 동기 대비 3.6%p 감소

ELS 기초자산 개수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발행액		기초자산 개수							
			1개		2개		3개		4개	
'24.상반기	18.3	(100.0)	9.8	(54.0)	2.5	(13.5)	5.9	(32.5)	0.0	(0.0)
'24.하반기	36.9	(100.0)	22.3	(60.3)	7.7	(20.8)	6.7	(18.0)	0.3	(0.9)
'25.상반기	21.7	(100.0)	11.0	(50.5)	2.6	(11.9)	7.7	(35.2)	0.4	(1.8)

- **(주요 기초자산별)**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KOSPI200(8.9조원), S&P500(8.0조원), EuroStoxx50(7.2조원), Nikkei225(2.7조원) 順
-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해외지수 기초 EL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지수 비중이 증가하고 KOSPI200의 비중이 소폭 감소('24.上 73.9% → '25.上 71.4%)

지수·혼합형 ELS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ELS 합계 (지수·혼합형)	주요 기초자산*				
		KOSPI200	S&P500	EuroStoxx50	Nikkei225	HSCEI
'24.상반기	10.2 (100.0)	7.6 (73.9)	6.4 (62.5)	5.9 (57.5)	1.6 (16.0)	0.4 (4.2)
'24.하반기	13.3 (100.0)	11.0 (82.5)	6.6 (49.2)	5.9 (44.1)	1.8 (13.6)	0.5 (4.1)
'25.상반기	12.5 (100.0)	8.9 (71.4)	8.0 (64.4)	7.2 (57.5)	2.7 (21.7)	0.6 (4.6)

* 2개 이상의 기초자산을 편입한 ELS의 경우 각각의 기초자산에 포함(중복계산)

- **(상품구조별)** Knock-In형 ELS 발행액은 4.9조원으로 전년 동기(2.9조원) 대비 2.0조원 증가하였으며, 비중(22.5%)은 6.5%p 증가
- 이 중 低 Knock-In형 ELS 발행액이 4.6조원(95.1%)으로 대부분을 차지

ELS 상품구조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발행액		Knock-In형		No Knock-In형	
			합계	低 Knock-In형*		
'24.상반기	18.3	(100.0)	2.9 (16.0)	2.8 (97.0)	15.3	(84.0)
'24.하반기	36.9	(100.0)	3.7 (10.0)	3.5 (95.5)	33.3	(90.1)
'25.상반기	21.7	(100.0)	4.9 (22.5)	4.6 (95.1)	16.9	(77.5)

* Knock-In 배리어가 50% 이하인 상품으로 배리어가 50%인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

- **(인수현황)** '25년 상반기 중 발행된 ELS는 일반공모(8.4조원, 38.5%), 은행신탁(6.6조원, 30.5%) 順으로 인수
- H지수 사태 이후 은행권 ELS 판매 중단('24년 상반기)으로 일반공모(증권사) 비중이 증가 추세*

* '23.上 20.7% → '24.上 33.1% → '25.上 38.5%

ELS 발행 인수자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발행액		인수자					
			은행신탁	일반공모	퇴직연금	자산운용	기타*	
'24.상반기	18.3	(100.0)	5.9 (32.8)	6.0 (33.1)	3.8 (20.6)	0.7 (3.6)	1.8	(9.9)
'24.하반기	36.9	(100.0)	6.0 (16.3)	7.2 (19.4)	21.6 (58.4)	0.5 (1.3)	1.7	(4.6)
'25.상반기	21.7	(100.0)	6.6 (30.5)	8.4 (38.5)	3.3 (15.0)	0.5 (2.3)	3.0	(13.7)

* 기타 : 은행 및 증권사의 고유분, 연기금, 일반기업, 증권신탁·보험·기타 사모 등

나

ELS 상황

- **(상환액)** '25년 상반기 중 ELS 전체 상환액은 18.0조원으로 전년 동기(32.9조원) 대비 14.9조원 감소

- 이는 H지수 기초 ELS 만기상환이 '24년 상반기에 집중된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
- 직전 반기(34.6조원) 대비 크게 감소(△16.6조원)한 것은 퇴직연금에
편입된 원금지급형의 만기상환이 연말에 집중된 영향

ELS 상환 유형별 현황

(단위: 조원, %)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합계	조기상환	만기상환	합계	조기상환	만기상환	합계	조기상환	만기상환
32.9	15.7	17.2	34.6	8.7	25.9	18.0	8.5	9.5
(100.0)	(47.8)	(52.2)	(100.0)	(25.2)	(74.8)	(100.0)	(47.3)	(52.7)

* 해당기간에 상환(중도해지 및 일부상환 제외)된 종목의 총 명목금액

다 ELS 잔액

- **(발행잔액)** '25.6월말 ELS 발행잔액은 53.6조원으로 전년말
(51.7조원) 대비 1.9조원 증가(3.8% ↑)
- 원금지급형 ELS 잔액은 41.9조원으로 전년말(41.7조원)과 유사
하나, 원금비보장형 ELS 잔액은 11.7조원으로 전년말(9.9조원)
대비 1.8조원 증가(18.5% ↑)

ELS 유형별 발행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4.6월말			'24.12월말			'25.6월말		
	합계	공모	사모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발행잔액	50.7	47.0	3.7	51.7	48.4	3.3	53.6	49.3	4.3
	(100.0)	(92.7)	(7.3)	(100.0)	(93.6)	(6.4)	(100.0)	(91.9)	(8.1)
원금지급형	34.6	33.4	1.1	41.7	40.1	1.6	41.9	39.5	2.3
	(68.2)	(66.0)	(2.3)	(80.8)	(77.7)	(3.1)	(78.1)	(73.8)	(4.3)
원금비보장형	16.1	13.5	2.5	9.9	8.3	1.7	11.7	9.7	2.0
	(31.8)	(26.7)	(5.0)	(19.2)	(16.0)	(3.2)	(21.9)	(18.2)	(3.7)

3 DLS 발행 · 상환 · 잔액 현황

가 DLS 발행

□ **(발행액)** '25년 상반기 중 DLS 발행액은 12.3조원으로 전년 동기(9.3조원) 대비 3.0조원 증가하였고 직전 반기(9.1조원) 대비 3.2조원 증가

○ 원금지급형 발행액은 10.6조원으로 전년 동기(7.4조원) 대비 3.2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금리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예금상품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에 기인

DLS 유형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합계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발 행 액	9.3 (100.0)	3.9 (42.8)	5.3 (57.2)	9.1 (100.0)	3.3 (36.1)	5.8 (63.9)	12.3 (100.0)	3.7 (30.3)	8.6 (69.7)
원금지급형	7.4 (79.3)	3.9 (42.8)	3.5 (36.5)	7.0 (76.6)	3.3 (36.1)	3.7 (40.5)	10.6 (86.0)	3.7 (30.3)	6.9 (55.7)
원금비보장형	1.9 (20.7)	0.0 (0.0)	1.9 (20.7)	2.1 (23.4)	0.0 (0.0)	2.1 (23.4)	1.7 (14.0)	0.0 (0.0)	1.7 (14.0)

□ **(주요 기초자산별)**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9.6조원), 신용(1.2조원), 환율(0.86조원), 기타(0.48조원) 順

DLS 기초자산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총액	금리	신용	환율	원자재	기타*
'24.상반기	9.3 (100.0)	6.8 (73.7)	1.2 (12.5)	0.68 (7.4)	0.07 (0.8)	0.53 (5.7)
'24.하반기	9.1 (100.0)	6.4 (70.8)	1.5 (16.4)	0.8 (8.8)	0.02 (0.2)	0.34 (3.7)
'25.상반기	12.3 (100.0)	9.6 (77.9)	1.2 (10.0)	0.86 (7.0)	0.16 (1.3)	0.48 (3.9)

* 주식 및 성격이 다른 기초자산의 혼합형(KOSPI200, 원자재 동시편입) 등

나 DLS 상환

- **(상환액)** '25년 상반기 중 DLS 상환액은 8.1조원으로 전년 동기 (6.6조원) 대비 1.5조원 증가(23.4% ↑)하였고, 직전 반기(8.7조원) 대비 0.6조원 감소(6.5% ↓)

DLS 상환 유형별 현황

(단위: 조원, %)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합계	조기상환	만기상환	합계	조기상환	만기상환	합계	조기상환	만기상환
6.6	1.3	5.3	8.7	0.9	7.8	8.1	1.3	6.8
(100.0)	(20.0)	(80.0)	(100.0)	(10.6)	(89.4)	(100.0)	(15.9)	(84.1)

* 해당기간에 상환(중도해지 및 일부상환 제외)된 종목의 총 명목금액

다 DLS 잔액

- **(발행잔액)** '25.6월말 DLS 발행잔액은 33.6조원으로 전년말 (29.9조원) 대비 3.7조원 증가(12.4% ↑)
- 원금지급형 발행잔액은 27.6조원으로 전년말(23.7조원) 대비 3.9조원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소폭 증가(+2.8%p)

DLS 유형별 발행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4.6월말			'24.12월말			'25.6월말		
	합계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합계	공모	사모
DLS 잔액	29.8	5.6	24.2	29.9	5.1	24.8	33.6	5.2	28.4
	(100.0)	(18.7)	(81.3)	(100.0)	(17.1)	(82.9)	(100.0)	(15.4)	(84.6)
원금지급형	24.2	5.6	18.6	23.7	5.1	18.6	27.6	5.2	22.4
	(81.1)	(18.6)	(62.4)	(79.3)	(17.0)	(62.2)	(82.0)	(15.4)	(66.7)
원금비보장형	5.6	0.0	5.6	6.2	0.0	6.2	6.0	0.0	6.0
	(18.9)	(0.0)	(18.9)	(20.7)	(0.0)	(20.7)	(18.0)	(0.0)	(17.9)

Ⅱ.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 현황

1 헤지방식

- '25.6월말 파생결합증권 잔액(87.2조원) 중 자체헤지 규모는 5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조원 증가하였고 비중(67.0%)은 유사한 수준
- ELS의 자체헤지 규모는 43.0조원으로 전년 동기(40.6조원) 대비 2.4조원 증가, 비중(80.2%)은 유사한 수준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 방식

(단위: 조원, %)

구 분	'24.6월말			'25.6월말		
	잔 액	자체(비중)	백투백(비중)	잔 액	자체(비중)	백투백(비중)
전체	80.5 (100.0)	53.9 (67.0)	26.5 (33.0)	87.2 (100.0)	58.4 (67.0)	28.8 (33.0)
ELS	50.7 (100.0)	40.6 (80.2)	10.0 (19.8)	53.6 (100.0)	43.0 (80.2)	10.6 (19.8)
DLS	29.8 (100.0)	13.3 (44.7)	16.5 (55.3)	33.6 (100.0)	15.4 (45.8)	18.2 (54.2)

- 백투백헤지 거래상대방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22.1조원으로 대부분(76.6%)이며 DLS가 ELS보다 외국계 의존도가 높은 편

파생결합증권 백투백헤지 거래상대방

(단위: 조원, %)

구 분	'24.6월말			'25.6월말		
	잔 액	외국계(비중)	국내사(비중)	잔 액	외국계(비중)	국내사(비중)
전체	26.5 (100.0)	20.1 (75.9)	6.4 (24.1)	28.8 (100.0)	22.1 (76.6)	6.7 (23.4)
ELS	10.0 (100.0)	6.7 (66.9)	3.3 (33.1)	10.6 (100.0)	7.1 (67.0)	3.5 (33.0)
DLS	16.5 (100.0)	13.4 (81.4)	3.1 (18.6)	18.2 (100.0)	15.0 (82.3)	3.2 (17.7)

2 운용자산 내역

□ '25.6월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자산(헤지자산)의 평가금액은 90.0조원으로, 부채평가액* (87.0조원)을 3.0조원 초과

* 파생결합증권 발행가액의 월말 평가잔액 등

○ 헤지자산은 채권이 80.9조원(89.8%)으로 가장 많으며, 예금·예치금 6.1조원(6.8%), 현금 2.7조원(3.0%) 順

○ 채권은 대부분 국내채권(89.2%, 72.2조원), 신용등급별로는 국공채, AA(장기) 또는 A1등급(단기) 이상 등 우량등급 채권이 대부분(86.7%)

※ 전체 헤지자산 대비 여신전문금융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의5(헤지자산의 분산운용)에 따른 여전채 한도(8%)를 안정적으로 하회

Ⅲ.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익 현황

□ (투자자) '25년 상반기 ELS 투자손익률은 연 5.3%로 전년 동기 대비 12.6%p 증가하였고, DLS 투자손익률은 연 3.3%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증가

○ H지수 기초 ELS가 '24년 중 대부분 상환됨에 따라 ELS 투자 수익률이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

파생결합증권 투자손익

(단위: 년, 조원, %)

구분		평균 투자기간*	원 금 (A)**	투자손익 (B)	투자손익률 (B/A)	연환산
ELS	'24.상반기	1.6	32.9	Δ3.7	Δ11.4	Δ7.3
	'25.상반기	0.8	18.0	0.8	4.3	5.3
DLS	'24.상반기	0.7	6.6	0.1	1.4	2.0
	'25.상반기	0.9	8.1	0.2	3.0	3.3

* 회차별 투자기간을 상환액면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투자기간

** 중도해지되어 조기상환·만기상환되지 않은 종목은 투자손익 산정에서 제외

- **(발행사)** '25년 상반기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전년 동기(3,712억원) 대비 967억원이 증가한 4,679억원
 -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 자체가 증가한 것이 증권사(발행사) 이익 증가에 주로 기인

IV. Knock-In 현황

- '25.6월말 기준 Knock-In 발생 파생결합증권은 4,341억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87.2조원)의 0.5% 수준(전액 ELS에서 발생)
 - '24년 중 H지수 기초 ELS가 대부분 상환됨에 따라, '25년 6월말 발생 비중(0.5%)은 전년 동기(0.8%) 대비 소폭 감소

Knock-In 발생한 상품 잔액 및 만기도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Knock-In 발생 상품 잔액	만기도래	
				'25년 하반기	'26년 이후
파생결합증권 전체			4,341	10	4,332
	ELS		4,341	10	4,332
	Knock-In 발생기간	~'24년	2,684	0	2,684
		'25년	1,658	10	1,648
DLS			-	-	-

V. 향후 대응계획

①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글로벌 증시 상승 및 저금리 기조 등과 같은 우호적 발행 여건이 유지될 경우 ELS 발행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를 감안하여 ELS 발행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붙임2]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투자자 주요 유의사항]

- ① 파생결합증권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므로 해당 상품의 **손익 발생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예) 투자자는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판매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② 설령, 조기상환시 이익이 났더라도 **재투자시에는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여력** 및 **기초자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② 파생결합사채 발행 관련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 H지수 사태 이후 원금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다만, 파생결합사채는 발행인의 신용상태·지급여력에 따라 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안내*

* [붙임3] 파생결합사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투자자 주요 유의사항]

- ① 파생결합사채는 원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에는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품입니다.
- ② 또한,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으므로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붙임 1] 파생결합증권(ELS, DLS) 개요

[붙임 2]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붙임 3] 파생결합사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1 파생결합증권(ELS, DL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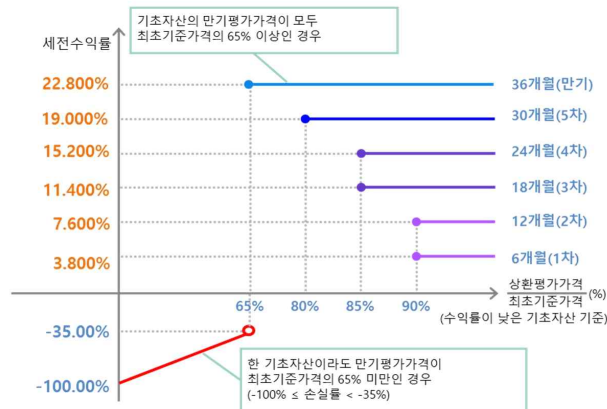
- ELS(Equity Linked Securities)와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파생결합증권, ELB(Equity Linked Bond)와 DLB(Derivative Linked Bond)는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이 자본시장법상 정확한 명칭이나, 편의상 모두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

□ ELS·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에 연동되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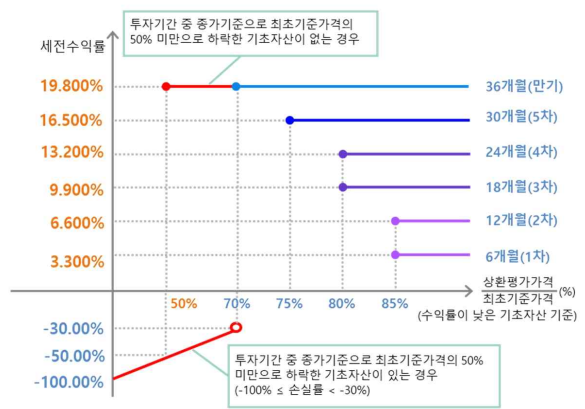
- 투자자는 주가지수 또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음

※ 기초자산이 3개인 Step-down ELS의 수익구조(예시)

< 노낙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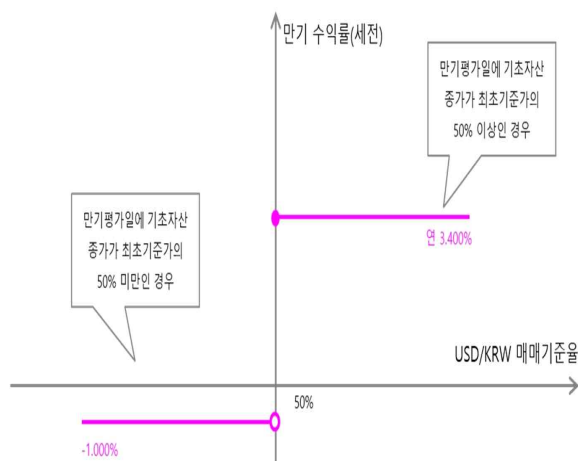
< 낙인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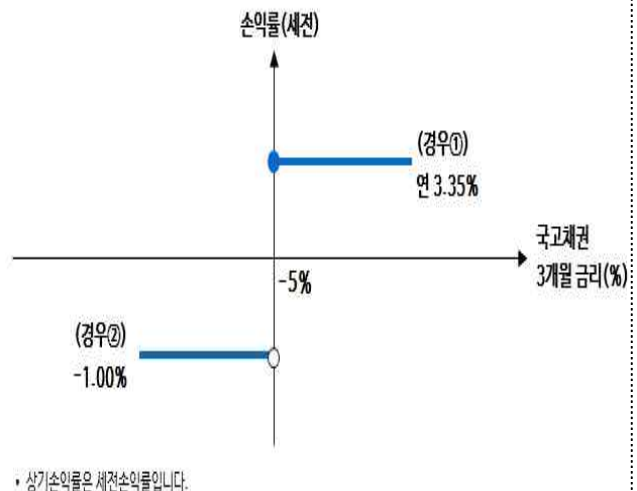
□ DLS·DLB는 기초자산으로 주가가 아닌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활용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 DLS의 수익구조(예시)

< 환율 >



< 금리 >



붙임 2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발행사의 파산 등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③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만큼 손익발생 조건, 기초자산의 가격추이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 기초자산 하락 등 변동성 확대 시 조기상환 지연, 낙인(Knock-In)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

-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상품의 제시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발생 및 원금상환 조건이 많아져 손실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

- 파생결합증권은 이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는 상품입니다.

⑥ 중도환매(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중도상환 신청 시 해당시점에 산정되는 중도상환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 조기상환은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조기상환을 기대하고 단기 필요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만기를 기준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기상환시 이익이 났더라도 재투자시에는 언제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여력 및 기초자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⑧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 한정

- 파생결합증권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 조건 수준으로 하락하고 기간 내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ELF도 예금이 아님

-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 및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ELS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가지므로 예금으로 알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⑩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

-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어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므로 반드시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해야 합니다.

붙임 3

파생결합사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①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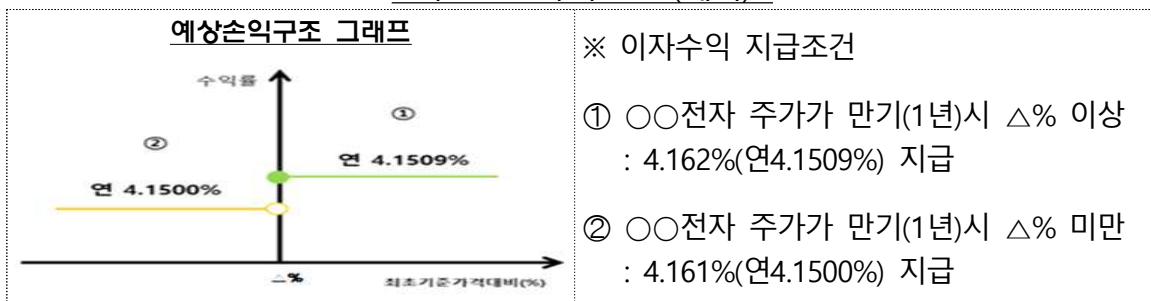
- 파생결합사채는 원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 의무가 없음

②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

- 발행사(증권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파생결합사채 상품(예시)>



③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

-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셔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중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활용

④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 발생

-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되어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품입니다. **발행사(증권회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셔야 합니다.